

## 유럽연합,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의 공공 용어 번역

임현경 벨기에 토마스 모어 안트베르펜/루벤대학교 석박사 통합 과정

### 1. 서문

과거 국내에서 진행된 공공 용어 관련 논의는 주로 어려운 한자로 된 전문 용어를 쉬운 용어로 풀어냄으로써 국민의 공공 정보 접근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세계화 추세 속에서 외국인 인구의 국내 유입과 국내 공공 콘텐츠의 해외 노출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공공 콘텐츠의 다국어 제공을 통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공공 기관에서 다국어로 발행하는 각종 콘텐츠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 번역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 사용자 및 공공 콘텐츠 사용자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려면 다국어 서비스에 사용되는 공공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국내 공공 기관에서 진행한 공공 용어 번역은 기관별로 임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각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용어를

먼저 집대성하고 기관 간 논의를 거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국어 공공 용어의 표기 방식 및 용어 선정에 일관성이 없어 외국인 사용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 내 공공 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먼저 알아본 다음, 다언어 국가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국어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 번역 및 공공 용어 관리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쌓아온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해외 공공 기관의 공공 용어 번역 현황

### 2.1. 유럽연합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유럽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공동체로, 모든 회원국의 평등을 보장하고 각국 시민의 유럽연합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은 다언어주의,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각국 시민, 정부, 기업 등 유럽 내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언어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각종 법규, 지침, 정치 문서 등 다양한 공공 문서를 유럽연합 공식어로 제공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유럽연합의 공식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영어, 덴마크어, 그리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체코어, 에스토니아어, 헝가리어,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불가리아어, 아일랜드어, 루마니아어, 크로아티아어 등 24개이다. 이 중 영어, 프랑스어, 독

일어가 회의 진행 및 공식 문건 작성 시 ‘절차어(procedural language)’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유럽연합의 모든 법안과 주요 정치 문서를 24개 공식어로 모두 번역해야 하나, 공공 문서에 대한 번역 수요가 언어별로 다르며 현실적인 예산 제약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문건을 24개 공식어로 번역하는 대신 주요 문서를 일단 절차어로 번역하거나, 절차어로 작성한 주요 문서를 특정 회원국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사법 재판소,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등 법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에서는 법률 언어 전문가(lawyer linguis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법률 언어 전문가는 언어 및 번역 능력 이외에도 해당 언어권 국가의 법률 관련 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유럽연합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CURIA 2009:5). 이들 법률 언어 전문가는 각종 법률 문서의 번역 품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법률 용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럽연합 내 모든 공공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 ‘IATE’에 대해 알아보고, 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를 주도해 온 주요 유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1.1.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는데, 이러한 기관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유럽연합 산하 기관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을 위해 통합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이 바로 ‘유럽 양방향 용어 데이터베이스(IATE; InterActive Terminology for Europe)’이다. 유럽연합 번역 센터와 유럽연합 내 주요 공공 기관들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1] IATE 검색 예시

<input type="text" value="mobility"/> <input type="button" value="Search"/>	
en > fr hr it nl (domain: Any domain, type of search: All)	
<b>Result 1- 10 of 307 for mobility</b>	
<b>Chemistry [ECHA-CdT]</b> <span style="float: right;">Full entry</span>	
EN mobility	**** *@ [ ] [ ]
FR mobilité	**** *@ [ ] [ ]
LT judrumas	**** *@ [ ] [ ]
NL mobiliteit	**** *@ [ ] [ ]
<b>Statistic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arth sciences, Technology and technical regulations [COM]</b> <span style="float: right;">Full entry</span>	
EN mobility	**** *@ [ ] [ ]
FR mobilité	**** *@ [ ] [ ]
LT judris; judrumas	**** *@ [ ] [ ]
NL beweeglijkheid	**** *@ [ ] [ ]
<b>FINANCE [ECA]</b> <span style="float: right;">Full entry</span>	
EN mobility	**** *@ [ ] [ ]
FR mobilité	**** *@ [ ] [ ]
NI mobiliteit	**** *@ [ ] [ ]

각 기관에서 중요도가 높은 공공 용어를 취합하여 용어집으로 만들면, 이들 용어를 유럽연합의 24개 공식어로 번역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다. 이들 용어는 내부용 IATE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며,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IATE 온라인 데이터베이스(<http://iate.europa.eu>)에 접속하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공개된다. 2013년 7월 현재 총 147만 건의 항목이 등재되어 있으며, 영어로 된 용어 수가 141만 5,79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순이다(정호정·임현경 2013:110~114).

IATE에서는 검색에 사용할 출발어를 1개 선택한 후 복수의 출발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는 주제 분야에 따라 언어별 용어를 나열하고 각 용어의 신뢰도 코드,<sup>1)</sup> 출처 정보, 맥락 정보, 참고 사항, 정의

1) ‘신뢰도 코드’란 해당 용어를 공공 용어로서 얼마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점수화한 지

를 팝업 형태로 제시한다. 뒤에서 살펴볼 타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의 간결성에 초점을 두었다.

### 2.1.2. 유관 기관 개요

유럽연합 내 공공 용어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유럽연합 번역 센터(Translation Centre for the Bodies of the European Union)와 유럽의회 전문 용어 조율 부서(EP TermCoord)가 있다. 유럽연합 번역 센터는 2003년부터 IATE에 대한 기술 지원, 유지 보수,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IATE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번역 센터 산하 ‘기관 간 IATE 그룹’이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 의회, 유럽 사법 재판소 등의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정호정·임현경 2013:111).

유럽의회 전문 용어 조율 부서도 IATE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다양한 공공 용어 연구 과제 진행, 공공 용어 관리 및 문서 도구 제공, 입법 절차 관련 신규 공공 용어 탐색 및 관련 용어집·정의 제공, 교육·공동 연수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 IATE 파트너 기관인 유럽연합 내 주요 공공 기관의 자체 번역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공공 용어를 취합·관리하고 IATE 관련 업무에 협력하고 있다.

## 2.2. 벨기에

벨기에는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는 다언어 국가이다. 1831년 국가 수립 당시에는 프랑스어만 공식어로 인

---

표이다. IATE에서는 4점 만점의 별점으로 신뢰도를 표시한다.

정하였으나, 이후 19세기 플란더스 민족 운동의 결과로 1898년에는 네덜란드어도 공식어로 인정되었다. 언어 공동체의 구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0년대 이후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는 공식어로서 동등하고 완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편 독일어의 경우 공식어로서의 지위가 학교 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벨기에는 연방 수준에서 보면 다언어 국가지만 개별 지역 수준에서는 단일 언어 정책을 견지하는 국가이다.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ity principle)에 따라 특정 언어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공 기관과의 교신 시 해당 지역의 공식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플란더스 지역은 네덜란드어, 왈로니아 지역은 프랑스어(왈로니아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어 사용), 브뤼셀 수도 지역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언어를 기준으로 한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공동체가 운영되는데, 이들 공동체는 각각 의회와 행정부를 두고 연방 정부와 함께 언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볼 유럽연합 및 캐나다의 사례와 달리 벨기에는 연방 정부 수준에서 3개 공식어로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sup>2)</sup>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언어별 공동체 수준에서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협의체인 '프랑코포니(Francophonie)', 네덜란드와 플란더스 지역의 정부 간 기관인 '네덜란드어 언어 연합(Nederlandse Taalunie)'<sup>3)</sup> 등과 공공 용어 관

---

2) 벨기에는 연방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나, 각 부처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 공공 용어를 취합하여 용어집 및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부에서 운영했던 벨고텀(Belgoterm)을 들 수 있다.

3) 네덜란드어 언어 연합은 네덜란드와 플란더스 지역의 네덜란드어 관련 공동 정책 수립을 위해 1980년 창립된 초국가기구로, 전문 용어 관리를 비롯한 각종 언어 정책을 지원하

리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언어권별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벨기에의 다국어 행정 서비스, 그리고 국내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 본 벨기에의 법률 번역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2.2.1. 다국어 행정 서비스

플란더스 지역 정부의 누리집(<http://www.flanders.be>)은 3개 공식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모든 언어에 동일한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콘텐츠 길이도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나 세부 콘텐츠 구성 및 순서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한편 안트베르펜, 겐트 등 주 단위 행정 기관의 누리집은 해당 지역의 공식어만을 사용하고 있다.<sup>4)</sup>

왈로니아 지역 정부의 누리집(<http://www.walloniam.be/en>)은 해당 지역의 공식어인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제공된다. 동 누리집의 경우 하위 페이지에서 언어를 전환하면 동일한 콘텐츠가 언어만 바뀐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더욱 높다. 한편 나무르 주정부 누리집은 3개 공식어와 영어를 지원한다.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브뤼셀 수도 지역의 누리집(<http://www.brussels.be/>)에는 2개 공식어와 영어가 사용된다. 단, 유럽연합 본부 소재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브뤼셀 도시 정보가 게재된 페이지는 2014년 현재 크로아티아어를 제외한 23개 유럽연합 공용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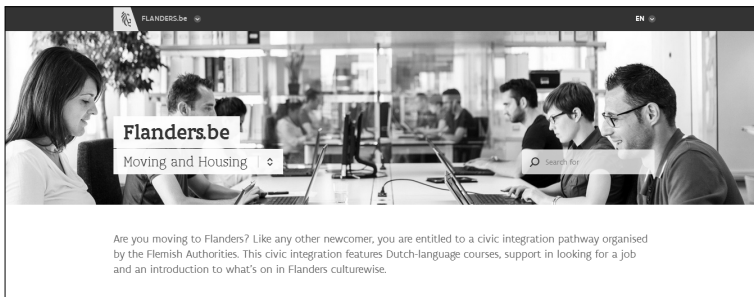
고 있다. 동 연합은 의료 용어, 법률 용어, 전문 용어학, 사전 편찬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독립조직인 네덜란드어 전문 용어 협회(NL-TERM)를 지원하고 있다 (Steurs 2007:7).

4) 안트베르펜 주정부의 경우 지역 주민이 주로 사용할 행정 누리집은 네덜란드어, 타 언어 구사자의 이용이 잦은 관광 누리집은 3개 공식어와 영어로 제공한다.

[그림 2] 플란더스 지역 정부 누리집(프랑스어)



[그림 3] 플란더스 지역 정부 누리집(영어)



로 제공된다.

### 2.2.2. 법률 번역

벨기에에서는 연방 정부의 법체계가 모든 언어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률, 규정, 장관령, 왕실칙령 등 모든 법률 문서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벨기에 관보(Belgisch Staatsblad, <http://www.ejustice.just.fgov.be/cgi/welcome.pl>)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벨기에 법무부는 자체 번역 부서를 두고 각종 법률 문서의 번역 작업을 수행



한다.

연방 정부에서 지역 정부로 자치 권한이 점차 이양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공식어로 방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렇게 제정된 지역 내 조례 및 법률을 타 공식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한 언어 간 번역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연방 정부 법 개념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 중 하나인 벨기에에는 다양한 유럽연합 규정의 국내화(transposing)를 위한 번역 수요가 높으며, 유럽연합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법률 개념 및 용어가 포함된 유럽연합 규정을 자국 공식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법률적 분석이 수행된다(Kockaert et al, 2012:2~3).

### 2.3. 스위스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등 4개 공식어<sup>5)</sup>를 사용하는 다언어 국가이다. 스위스 헌법 70조에 따라 26개 칸톤(canton)별로 사용할 언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sup>6)</sup> 2~3개 언어를 사용하는 일부 칸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칸톤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

---

5) 스위스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를 나타내는 국가어(national language)와 공공 기관과의 공식 교신에 사용되는 공식어(official language)를 구분하고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는 1848년 공식어로 인정받은 반면, 로망슈어는 1938년 국가어로 인정받았고 1996년에는 로망슈어 사용자와 교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식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Central Language Services 2012:9).

6) 단, 현행 헌법에서 정해진 지역별 언어 구성은 변경이 불가능한데, 이는 로망슈어와 이탈리아어 등 소수 언어의 사용을 보장하여 스위스의 언어적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며, 벨기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공공 기관의 교신에서는 해당 칸톤의 공식어를 사용하여야 한다(Morrison 2013:2).

스위스 연방 정부는 국민과 의사소통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3개 공식어를 사용해야 하며, 연방 정부의 공식 문서도 3개 언어로 작성된다. 스위스 연방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법률 문서의 초안을 독일어로 작성하며, 일부 프랑스어로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입법 과정에서 예비본은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본만 이탈리아어까지 포함한 3개 공식어로 작성한다. 한편 중요도가 높거나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공식 문서는 영어로도 번역하며, 스위스 연방 헌법, 민법, 형법 등 일부 법률도 영어로 번역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Central Language Services 2012:15~17).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공공 문서의 다국어 작성 및 번역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연방 정부 수준에서 연방 사무처 중앙 언어 서비스부를 비롯한 각급 번역 부서를 운영하며 공공 번역 및 공공 용어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연방 사무처 중앙 언어 서비스부를 중심으로 스위스의 다국어 행정 서비스, 법률번역 및 공공 용어 관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2.3.1. 유관 기관 개요

‘연방 사무처 중앙 언어 서비스부(Federal Chancellery Central Language Services)’는 스위스 연방 정부와 연방 의회의 서무 관장 기관인 연방 사무처 소속으로 번역 및 언어 서비스<sup>7)</sup>를 제공하는 부서이다. 중앙 언어

---

7) 연방 사무처 중앙 언어 서비스부 이외에도 연방 정부 내 각 부처, 연방 의회, 연방 법원, 연방 기술연구소에서 내부 언어 서비스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언어 서비스 부서는 언

서비스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Central Language Services 2012:10~12).

- 연방법 · 조례, 의회 보고서, 보도 자료, 전산망 자료, 연설문, 판결문, 대국민 담화, 지침 등 연방 정부 문서를 3개 공식어로 번역 · 교정(일부 문서는 영어 · 로망슈어로도 번역)
- 법률 문서의 작성, 편집 및 수정(특히 법조문의 경우 언어 간 검토 및 교정도 포함)
- 간행 대상 문서의 준비 작업(매주 연방 정부 관보 발행 및 온라인 업데이트)
- 온라인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 ‘텀닷(TERMDAT)’을 통해 공공 용어를 수집, 입력, 배포하고 연방 정부 부처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높은 품질의 다국어 공공 용어 제공
- 공식어 관련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신어, 외래어, 미디어상의 신규 언어 형태 등을 분석하고 지침을 제공

중앙 언어 서비스부는 ‘내부 초안 작성 위원회’를 통해 모든 법률 문서의 명확성, 간결성, 언어적 무결성을 점검하고 있다. 중앙 언어 서비스부 소속의 언어 전문가와 연방 법무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언어와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결합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독일어와 프랑스어 초안을 나란히 두고 검토 · 교정하면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취한다(Central Language Services

---

어별 섹션으로 구분되며, 각 섹션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일부 활동은 중앙 언어 서비스부가 직접 조율하고 있다(Central Language Services 2012:8~9).

2012:15).

중앙 언어 서비스부의 전문 용어 섹션에서는 스위스 연방 정부의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인 ‘텡닷’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3.3.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2.3.2. 다국어 행정 서비스

스위스 연방 정부 누리집(www.admin.ch)은 4개 공식어와 영어<sup>8)</sup>로 제공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위스 연방법 주요 규정을 취합하여 5개 언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언어 비교(Language Comparison)’ 기능을 도입하여 동일한 법규를 최대 5개 언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단, 영어 번역본은 일부 법규에 한해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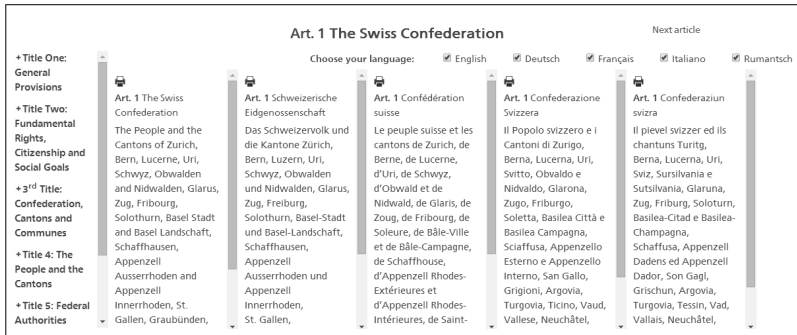
스위스 연방 정부 소식 페이지(www.media.admin.ch)는 로망슈어를 제외한 3개 공식어 및 영어로 제공된다. 3개 공식어로는 모든 콘텐츠가 동일하게 업데이트되어 있고, 영어로도 거의 모든 콘텐츠가 제공된다. 하위 페이지에서 언어 간 전환이 가능하여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한편 스위스 관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간행된다.

칸톤별 누리집의 경우 해당 칸톤의 언어 구성 및 특성에 따라 서비스 대상 언어가 달라진다. 일례로 바젤 칸톤(<http://www.basel.ch/>)의 경

---

8) 제네바를 중심으로 다수의 국제기구가 있는 스위스에서는 해당 지역의 공식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국제기구 종사자 등의 외국인이 행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스위스 전체 인구 중 약 20%가 외국인이며, 이들 중 특히 비유럽인은 스위스의 4개 공식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인 중에서도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은 행정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겪기도 한다(Morrison 2013:3).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로 된 행정 서비스의 지원은 스위스 내 외국인 인구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정보 접근성 보장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스위스 연방법 규정에 대한 ‘언어 비교’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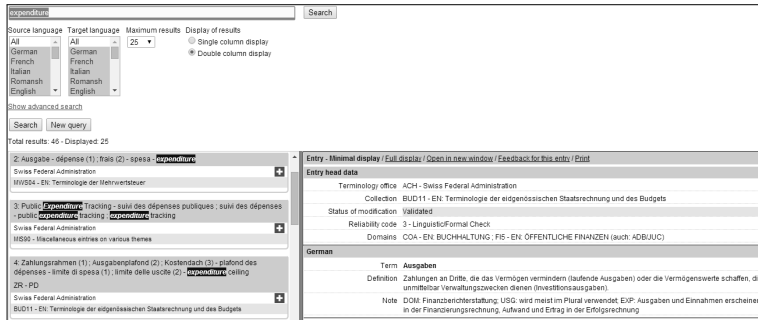
우 전반적인 서비스는 공식어인 독일어로 이루어지지만, 칸톤 소개 및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로망슈어를 제외한 3개 공식어 이외에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지원하고 있다.

### 2.3.3.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

스위스 연방 정부의 다국어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인 ‘팀닷’은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의 ‘유로디코툼(EURODICAUTOM)’을 모태로 1987년에 구축되었으며(Fomasi 1999:246), 연방 정부 내부 용도로 활용하는 동시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www.termdat.ch) 형태로 일반에도 제공된다. 스위스 공공 용어와 더불어 유럽연합 관련 공공 용어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현재 150만여 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스위스에 특정한 항목은 40만여 개다(Central Language Services 2012:15).

팀닷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스위스의 4개 공식어와 더불어, 영어, 라틴어, 덴마크어, 핀란드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그림 19] 텀닷 검색 예시



스페인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한국어, 중국어, 터키어를 지원한다.<sup>9)</sup>

텀닷에서는 검색에 사용할 출발어, 도착어, 한 화면에 표시할 검색 결과 수, 검색 결과 표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검색을 실행하면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모든 항목이 목록에 나타나며, 항목별로 용어입력 주체, 세부 데이터베이스명, 항목 수정 상태, 신뢰도 코드,<sup>10)</sup> 주제 분야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언어별 용어, 용례, 정의, 참조 사항 등을 표시한다. 이러한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어떠한 공공 용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하여 공공 번역 및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9) 단,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4개 공식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항목은 라틴어와 스페인어로 구축되어 있다. 한국어를 비롯한 기타 언어의 경우 인터페이스상에는 존재하나 현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등재된 항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텀닷의 경우 신뢰도 코드를 초안(1점), 잠정 용어(2점), 언어/형식 검토 완료(3점), 전문가 확인 완료(4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2.4. 캐나다

캐나다는 헌법을 통해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식어<sup>11)</sup>로 인정하고 있는 다언어 국가이다. 퀘벡(Quebec)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며, 퀘벡에서는 프랑스어가 공식어이다. 2개 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이중 언어 지역은 뉴브룬즈윅(New Brunswick)이 유일하다.

캐나다에서는 의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2개 공식어로 기록·보관하고 정부의 법안, 자료, 법령, 규칙 등 각종 공공 문서도 2개 공식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 번역 및 공공 용어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연방 정부 내에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별도 부서인 ‘번역국’을 두고 정부 부처, 의회, 지방 자치 단체 등에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정호정·임현경 2013:122).

### 2.4.1. 유관 기관 개요

1934년에 창설된 캐나다 번역국(BT:Bureau de la Traduction)은 연방 정부의 번역 업무를 일원화하고 캐나다 국민이 원하는 공식어로 공공 문서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캐나다 가티노(Gatineau)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800여 명의 직원 중 1,200명이 번역

---

11) 캐나다는 1840년 통합법령 제41항을 통해 영어를 캐나다의 유일한 공식어로 지정했으나, 곧이어 1841년 에티엔 파랑(Etienne Parent)이 상정한 ‘이 지역 법률의 프랑스어 번역본 제공 및 그와 관련된 기타 목적을 위한 법령’을 통해 캐나다의 모든 법률의 인쇄·유포 시 프랑스어 번역을 의무화하였다. 이후 1867년 ‘영국 북아메리카 법령’ 제133항에서는 하원과 연방 및 퀘벡 법정에서 영어와 프랑스어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베이커 2009:519~520).

사, 통역사, 전문 용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상근 번역사 이외에도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외주 인력 풀을 두고 다양한 공공 번역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정호정·임현경 2013:122~123).

번역국은 공공 용어 표준화 및 배포를 담당하는 전문 용어 표준화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 및 의회 번역부, 고객 관리 및 의사소통을 관장하는 고객 서비스부, 정부 활동 관련 번역 및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부, 번역국 조직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는 통합 서비스부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번역국에서 제공하는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인 '테르미엄 플러스(Termium Plus)'의 운영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4.2.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

번역국 전문 용어 표준화부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 용어를 표준화하여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캐나다 정부의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인 '테르미엄 플러스(Termium Plus)'의 구축 및 배포가 주요 업무이다.

'테르미엄 플러스'는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개발하여 1975년에 번역국에서 인수한 '테르미엄'의 최신 버전으로, 번역국 내부 번역사를 위한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되다 1999년부터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http://www.btb.termiumplus.gc.ca/>)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었다(정호정·임현경 2013:125~126).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공공 용어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어 및 이누크티투트어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정호정·임현경 2013:128). 2012년부터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용자를 위한 앱 서비스도 추가되었다.



[그림 6] 테르미엄 플러스 검색 예시



테르미엄 플러스에서 검색을 수행하면 주제 분야에 따른 항목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표시된다. 항목별로 입력 일자와 용어 및 동의어, 정의, 참조 사항이 제시되며, 용어 · 정의 · 참조 사항 옆에 있는 ‘출처 정보(source)’ 아이콘을 클릭하면 출처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3. 결론

지금까지 24개 공식어를 사용하는 다언어 · 다문화 지역 기구로 공공 번역 및 공공 용어 관리의 대표적 선진 사례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 그리고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개에 달하는 공식어를 사용하는 다언어 국가로 공공 번역 및 공공 용어 관리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벨기에와 스위스,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공공 기관의 다국어 공공 용어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 선진 사례 중 대부분은 연방 정부 또는 지역 기구 차원에서 모든 공공 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공공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반 사용자에게도 공개하고 있으며, 부처 수준에서도 자체 번역 부서 내에서 공공 용어를 취합하고 여러 언어로 관리하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단일 언어 국가인 한국에 이들 선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이들의 역사적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공공 번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의 다국어 공공 용어 관리 절차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용어 관리를 위한 표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다국어 공공 용어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부처별로 사용되던 공공 용어를 취합하여 다국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리한 다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서비스한다면 일관성 있는 공공 용어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공 번역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 용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번역 및 용어 관리 업무를 일체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절차 및 소프트웨어 도구를 도입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활용이 특히 중요한 법률 분야 공공 번역의 경우,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법률 언어 전문가 인력을 발굴하여 번역 및 용어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 번역과 관련된 스위스의 경우처럼 언어 전문가와 주제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여 다국어 공공 콘텐츠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 참고문헌

- 모나 베이커 편(2009),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한국번역학회 옮김, 한신문화사. [원저: Ed. Baker, M.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정호정·임현경(2013), 《공공 번역 표준화의 모델: 한국형 모델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 연구》, 한국문화사.
- Central Language Services(2012), *The Language Services of the Federal Administration*, Bern: Federal Chancellery Central Language Services.
- CURIA(2009), *Working as an English-language lawyer linguist a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Fomasi, F.(1999), Terminology Work in the Swiss Federal Administration, *Forest Snow and Landscape Research*, 74(2), 245~252.
- Kockaert, H., Steurs, F. & Sauberer, G.(2012), *Translation Challenges in a Multilingual Society: Legal Translation in Belgium*. Edition: 1st edition.
- Morrison, T.(2013), Switzerland: A Country of Multilingualism, *PROSPEC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at UCSD*. [Retrieved on July 6: <http://prospectjournal.org/2013/07/08/switzerland-a-country-of-multi-lingualism-3/>]
- Steurs, F.(2007), Terminology infrastructure In Europe: An asset to multilingual knowledge management. In Murath, J. (ed.) & Olah-Hubai, A. (ed.), *Interdisciplinary aspect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terdisziplinäre Aspekte des Übersetzens und Dolmetschen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Interdisciplinary Aspect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écs, Hungary, 23-25 June 2005: 73~86.